

마그네슘 신기술 워크숍 26일 창원 개최

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은 6월26일 오전 10시부터 창원 한국기계연구원(KIMM) 재료연구소에서 제6회 마그네슘 신기술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.

워크숍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강성훈 박사의 <마그네슘 단조기술의 동향과 전망>,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추동균 박사의 <스트립 캐스팅에 의한 마그네슘 판재 제조기술>, 포스코(POSCO) 최상훈 과장의 <마그네슘 판재 사업추진 현황 및 제품화 방안>, 현대모비스 김대업 박사의 <자동차부품용 경량재료의 적용현황 및 전망> 등 6개 주제로 강연한다.

마그네슘 합금은 알루미늄보다 30% 이상 가벼운 합금으로 휴대용 전자제품의 케이스용으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중 스티어링 휠 코어, 시트 프레임 등에 사용돼 경량화 및 고강도를 꾀할 수 있는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.

워크숍 관련 문의: 한국마그네슘기술연구조합(☎055-282-6646)

<화학저널 2007/06/20>